

천연기념물이란 문화재

가쓰라 유조 (문화청 기념물과 천연기념물부문 주임문화재조사관)

2011년 3월 11일 동북 일본 태평양 지진 (동일본대 지진) 이 일어나 사상자가 19,386명에 이르는 막대한 쓰나미 피해가 일어났다.

지진 후 다양한 복구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고지대로의 이주, 저지대의 피난타워 정비, 쓰레기를 이용한 해안림 정비, 지진복구공원 구상 등등...

이와테현에서 제공받은 리쿠젠다카타시 [陸前高田市]의 죠몬시대부터 근세까지의 유적 분포와 쓰나미 피해범위를 중첩시킨 지형도를 보면 이번 쓰나미의 피해 범위의 경계선에 위치하는 것 같이 분포하고 있는 유적이 인상적이다. 쓰나미 피해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시가지 대부분은 죠몬시대 이후 충적작용에 의해 형성된 저지대로서 근세 이후 매립이 진행되었던 곳이다.

천 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 정도의 피해를 눈 앞에 두고, 끊임없이 마음에 새겨두어야 했던 우리가 살고 있는 풍토,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독촉 당한 느낌이다.

일본의 천연 기념물 지정 건수 (2012년 10월)

분류	건수
동물	194 (21)
식물	545 (30)
지질 광물	237 (20)
천연보호구역	23 (4)
합계	999 (75)

※괄호 안의 숫자는 특별 천연 기념물의 건수

방제 기술의 고안, 이동수단의 발달, 정보교환의 용이 등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 줄 기술과학이 최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생활 기반은 지역 고유의 풍토에 뿌리 박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는 일본은 동쪽으로 태평양지각판이 침하하면서 부가 (付加) 하는 지층에 의해 일본열도가 성장하였고, 세키료우산맥 [脊梁山脈] 의 용기를 촉진하였다. 이러한 지형상의 특징으로 태평양 연안지역은 해구형 거대지진, 내륙지역은 직하형 지진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지진피해의 기록은 유사 이래 일일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고, 침하하는 지각판의 압력은 열도를 작은 지형 단위로 쪼개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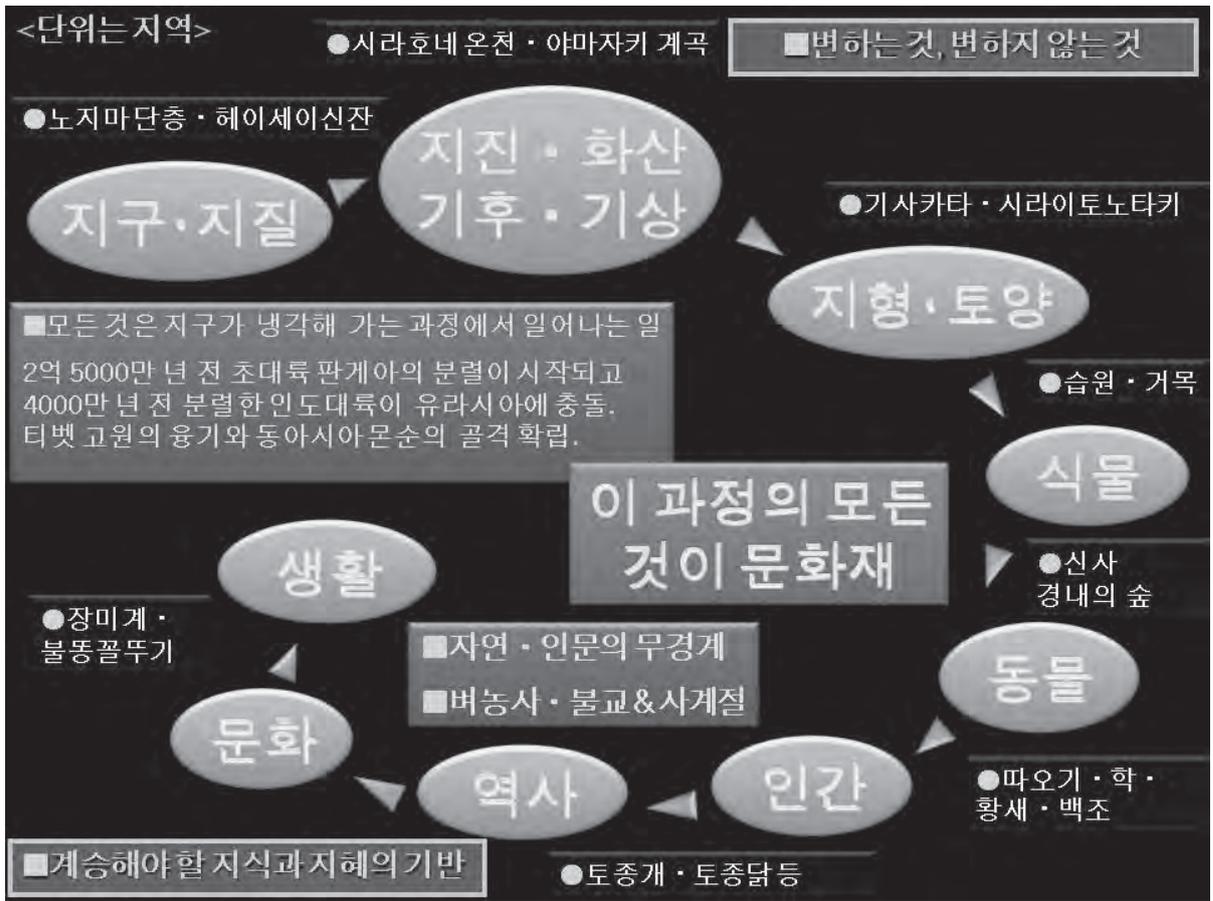
더구나 침하하는 지각판에 의해 생성된 물은 암석을 녹여 화산으로 분출시키면서 풍부한 온천과 화산 용수의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일본은 동아시아 몬순 지대에 속하고, 바다에 둘러싸여 사계가 분명하고, 강수량이 풍부하다. 이 때문에 하천의 상류 지역은 침식작용이 활발하고, 하류 지역은 퇴적작용이 활발한 특징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대적인 침식작용과 퇴적작용은 작은 지형 단위를 갖는 일본 열도의 풍토를 더욱더 변화 무쌍하게 만들었고, 토양형성도 다양하게 촉진시켰다. 지역마다 다른 토양은 다양한 식물상과 그에 적응한 다양한 동물상을 만들었고, 인간도 그것의 한 부분이 되었다.

테라다 토라히코 (寺田寅彦, 1878.11.28-1935.12.31)의 수필 『일본인의 자연관』을 보면 "인류도 식물이나 동물과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동안 자연에 의해 키워져 왔으며, 처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형성되었다. 모든 환경의 특이성에는 그 속에서 키워진 것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고유한 인명 (印銘) 을 남기고 있다고 생각된다."라고 적고 있다.

좋은 싫든 예부터 우리들은 지진, 분화, 기상 재해를 시작으로 자연의 영향을 강하게 받거나 별 피해 없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역사 속에서 문화를 양성하여 왔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거의 역사 속에서 자연과의 공존방법을 배우면서, 현재를



우리의 삶과 그 구조를 전하는 문화재들

그리고 미래의 생활상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과거 90년 동안 고생대 화석부터 취락의 전통적 축제까지 삼라만상이라고 해도 될 만큼 다양한 대상을 문화재로 보호해 왔다. 문화재라는 것은 자연과 공생하는 지혜, 풍토와 지역색에 대한 지혜(지식)을 환기시킬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보존되어 온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해 문화재는 우리들의 역사와 문화의 이정표에 해당되는 사물을 보존하여 그 속에 깃들여 있는 지혜 또는 지식을 계승하는 근거로서 기능해야 할 것으로 생각다. 또한 문화재는 그 절단면에 의해 다채로운 표정을 보여주며, 다양한 문화재는 시공을 초월하여 복잡하게 얽혀 각양각색의 스토리를 전개한다.

천연기념물도 이러한 문화재의 유형으로서 단순히 학술상 귀중한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을 보존한 것이 아닌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성, 생업, 생활과 관련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가쓰라 유조 [桂 雄三] 2007 “천연기념물이 목표로 하는 것: 문화재 보호 행정의 현장에서”; 월간 문화재, 2007년 4월호 (통권 제 523호), 제일법규, p.p.4-9, ISSN 0016-5948

